
연구논문

옥천인의 해외독립운동과 선양사업의 과제

박걸순*

-
- I. 머리말
 - II. 옥천의 독립운동가 현황
 - III. 옥천인의 해외독립운동
 - IV. 독립운동가와 사적지 선양사업의 과제
 - V. 맺음말
-

【국문초록】

2020년 11월 현재, 옥천 출신의 독립유공자는 51명이다. 이들을 운동계열별로 보면 3·1운동 참여자가 26명으로 절반이 넘고, 국내항일 9명, 의병 6명, 중국방면 3명, 의열투쟁과 학생운동 각 2명, 임시정부·만주방면·미주방면 각 1명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들 가운데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는 윤봉길 의거를 지원한 광중규·광중선 형제, 무장투쟁을 위해 둔전병 계획을 추진한 김규홍, 국내 의병에서 만주 독립군으로의 전환을 실증하는 김응선, 미주지역의 독립운동과 한인 언론을 주도한 김현구, 만주 독립군으로서 국내 의열투쟁을 계획한 전좌환, 다양한 이념을 수용하여 불굴의 투쟁을 벌

*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인 조동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옥천의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설은 영성하다. 옥천의 상징적 공간에 지역의 독립운동을 종합한 ‘옥천독립운동기념탑’(가칭)과, 국권회복운동을 상징하는 활동으로 1907년 국채보상운동과 1909년 문태수 의진의 이원역 폭과 의거를 기억하는 기념하는 기념물, 옥천의 3·1운동을 상징하는 이원과 청산의 만세운동 현장에 표지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옥천의 독립운동가를 대표하는 인물인 전좌한과 김규홍의 행적에 시비가 제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전좌한에 대해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수차에 걸쳐 논란이 있었다. 김규홍에 대해서는 2016년 『宇都宮太郎日記』의 수록 내용 확인으로 행적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2019년 김규홍이 宇都宮太郎에게 보낸 편지가 새로 발굴되어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김규홍 평가가 전면 부정당할 수도 있다. 차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실을 입증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때이다. 만일 일제측 기록이 사실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던 김규홍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옥천 출신 독립운동가, 해외 독립운동, 선양사업, 김규홍, 『宇都宮太郎日記』

I. 머리말

옥천은 우리 근대사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전개되고 많은 인물이 태어난 고장이다. 1894년 동학혁명 당시 청산 문바위 골은 ‘작은 장안’으로서 한국 근대 변혁운동의 진원을 이룬 곳이다. 한말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이 기울자 옥천인들은 국권회복운동을 펼쳤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나섰다.

2020년 11월 현재,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서훈된 옥천 출신 독립유공자는 51명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옥천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다거나, 특출한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옥천인들은 3·1운동·국내항일·의병·학생운동·의열투쟁·임시정부·중국과 만주방면·미주방면 등 다양한 계열에서 활동하였다. 이들 가운데 광중규·광중선 형제·김규홍·김응선·김현구·전좌환·조동호 등은 해외를 무대로 활동하였다.

최근 옥천지역에서 독립운동사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선양사업이 활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2019년 12월, 3·1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청산면 백운리에 「청산3·1독립만세운동기념탑」이 세워진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보훈처에 국가현충시설로 등록 지정된 독립운동사 관련 기념물은 이원면의 「己未三·一運動紀念碑」와 군서면의 「충민사」 2개소가 고작이다. 그나마 「기미3·1운동기념비」는 1958년에 건립된 것으로 史實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옥천 출신 독립운동가를 대표하는 김규홍에 대한 행적 문제가 제기되었으나,¹⁾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김규홍기념비 건립과 학술세미나, 평전 간행 등의 선양사업이 지속되었다. 그러던 2019년 8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KBS가 다큐멘터리 「밀정」 2부작을 방영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²⁾ 제2부는 김규홍의 행적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방송에 대한 기념사업회 측의 반론도 있었으나,³⁾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선양사업을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고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옥천의 독립유공자

1) 박걸순, 2016, 「옥천 근대의 기억과 독립운동가」, 『중원문화연구』 24.
 2) KBS-TV, 2019년 8월 20일 방영, <시시기획 창, 밀정 2부작 ‘임시정부를 파괴하라’>.
 3) (사)범재김규홍기념사업회는 즉각 홈페이지를 통해 장문의 「김규홍 밀정설 보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2019. 8. 28)을 발표하였다.
 (<http://www.kimguyheung.or.kr/bbs/board/312613>)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에서 활동한 옥천 출신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옥천지역의 독립운동사 선양사업과 독립운동가, 특히 진좌한과 김규홍의 행적 및 선양과 관련하여 소견을 피력하고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II. 옥천의 독립운동가 현황

2020년 11월 현재, 옥천 출신으로서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수여받은 독립유공자는 모두 51명이다.⁴⁾ 그런데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는 본적이 다르게 기재되어 당초 옥천 출신으로 분류되었던 인물이 본적 미상으로 분류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⁵⁾ 옥천 출신 독립유공자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옥천 출신 독립유공자 일람표

연번	성명	한자명	생몰연도	운동계열	포상년도	훈격
1	고한주	高漢周	1895 ~ 1927	3.1운동	1993	애족장
2	공재익	孔在翊	1878 ~ 1949	3.1운동	1990	애족장
3	곽준희	郭俊熙	1870 ~ 1940	의병	1996	애국장
4	곽중규	郭重奎	1891 ~ 1950	임시정부	1992	독립장
5	곽중선	郭重善	1907 ~ 1935	중국방면	1992	애족장
6	권춘경	權春京	1886 ~ 미상	의병	2015	애족장
7	김규홍	金奎興	1872 ~ 1936	중국방면	1998	애국장
8	김성권	金成權	1870 ~ 미상	의병	2018	애족장
9	김순구	金舜九	1867 ~ 1919	3.1운동	1991	애국장

4) 2020년 11월 현재, 전국의 독립유공자는 16,282명인데, 이 가운데 충북 출신은 531명(3.26%)이다. 충북의 독립유공자는 청주(107)-영동(63)-괴산(58)-제천(58)-옥천(51)-충주(45)-음성(41)-보은(30)-단양(21)-진천(19) 순이다.

5)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list.asp). 2016년 당시 金鴻機(미주방면, 2011년 건국포장)의 본적이 옥천으로 분류되어 등재되었으나, 지금은 미상으로 분류되어 옥천 출신에서 제외되었다.

10	김용이	金龍伊	1889 ~ 1958	3.1운동	1990	애국장
11	김운용	金云用	1896 ~ 미상	국내항일	2015	애족장
12	김응선	金應善	1883 ~ 1944	만주방면	1991	애국장
13	김인수	金仁洙	1887 ~ 1919	3.1운동	1991	애국장
14	김지수	金芝洙	1880 ~ 1961	3.1운동	1993	대통령표창
15	김철수	金轍洙	1878 ~ 1919	3.1운동	1991	애국장
16	김한주	金漢洲	1876 ~ 1962	3.1운동	1993	애족장
17	김현구	金鉉九	1889 ~ 1967	미주방면	1995	애국장
18	김홍락	金洪	1879 ~ 미상	3.1운동	2010	대통령표창
19	류제영	柳在英	1889 ~ 1945	국내항일	2008	건국포장
20	박동희	朴東羲	1896 ~ 1924	3.1운동	2018	대통령표창
21	박만하	朴萬夏	1879 ~ 1951	3.1운동	2010	대통령표창
22	박재호	朴在浩	1876 ~ 1947	3.1운동	1990	애족장
23	박종규	朴宗奎	1871 ~ 미상	의병	2015	애국장
24	박종섭	朴鍾燮	1873 ~ 미상	의열투쟁	2015	애족장
25	배용석	裴用石	1899 ~ 1926	3.1운동	1990	애족장
26	백인섭	白仁燮	1887 ~ 미상	의병	2015	애국장
27	손일만	孫一萬	1901 ~ 1966	3.1운동	2020	대통령표창
28	송암우	宋岩于	1897 ~ 1959	국내항일	2008	애족장
29	안병하	安秉夏	1891 ~ 1960	3.1운동	1993	애족장
30	양한위	梁漢緯	1883 ~ 1949	국내항일	1990	애국장
31	오형덕	吳亨德	미상	의병	2013	애족장
32	유궁렬	柳兢烈	1893 ~ 미상	국내항일	2016	대통령표창
33	유재혁	柳在赫	1911 ~ 미상	국내항일	2007	애족장
34	육동백	陸東百	1908 ~ 2007	학생운동	1990	애족장
35	육창주	陸昌柱	1886 ~ 1950	3.1운동	2005	애국장
36	이금봉	李金奉	1896 ~ 1950	3.1운동	1990	애족장
37	이면호	李冕鎬	1878 ~ 1920	3.1운동	1991	애국장
38	이수천	李壽千	1899 ~ 1965	3.1운동	2014	대통령표창
39	이호영	李瑚寧	1899 ~ 1968	3.1운동	2006	애족장
40	임선재	任善宰	1902 ~ 1973	국내항일	1990	애족장
41	진좌환	全佐漢	1899 ~ 1986	중국방면	1963	독립장
42	정명옥	鄭明玉	1898 ~ 미상	국내항일	2015	애족장
43	정종석	鄭鍾奭	1905 ~ 1973	학생운동	1990	애족장
44	정화순	鄭化順	1871 ~ 미상	3.1운동	2010	대통령표창
45	조동호	趙東祐	1892 ~ 1954	국내항일	2005	독립장
46	지팔문	池八文	1884 ~ 미상	의열투쟁	2015	애족장
47	허간	許諫	1859 ~ 1942	3.1운동	1990	애족장

48	허상구	許相球	1898 ~ 1958	3.1운동	1990	애족장
49	허상기	許相基	1871 ~ 1946	3.1운동	1990	애국장
50	허상회	許相淮	1881 ~ 1968	3.1운동	1990	애족장
51	허찬	許贊	1886 ~ 1945	3.1운동	1992	애족장

이들을 운동계열별로 분류하면 3·1운동이 26명으로 가장 많다. 1919년 3월 27일 이원장터에는 6백여 명의 시위군중이 만세시위를 벌이다 이원경찰주재소로 쇄도하여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주재소 안으로 돌입하여 유치장과 벽을 파괴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이때 옥천헌병분대장 등이 응원 출동하였으나, 오히려 10명의 헌병이 부상할 정도로 시위 군중의 기세가 등등 하자 다시 장교 이하 21명을 파견, 사격을 감행하여 희생자가 발생하였다.⁶⁾ 조선헌병대사령부는 옥천 이원 시위를 매우 주목하였고, 이를 ‘충북지방에서 폭행 시위의 효시’라고 보고하였다.⁷⁾ 이원 시위 참여자 가운데 13명(공재익·김용이·박만하·배용석·육창주·이금봉·이면호·이호영·허간·허상구·허상기·허상회·허찬)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었다.⁸⁾

4월 2일과 3일에는 청산에서 만세함성이 울려 퍼졌다. 2일 밤에 3백여 명이 전개한 시위는 곧 해산되었으나, 이튿날에는 1,000여 명의 군중이 청산 헌병주재소를 내습하였는데 위기를 느낀 일제가 무차별 발포를 감행하여 5명이 현장에서 순국하였다.⁹⁾ 청산 시위 참여자 가운데에는 10명(고한주·김인수·김지수·김철수·김한주·김홍·박동희·박재호·손일만·안병하)이 포상되었다.¹⁰⁾

6) 高第九一四六號, 1919. 3. 28,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二十九報)」(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 I 卷, 431 ~ 433쪽).

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권, 533쪽.

8) 「陸昌柱 등 판결문」(1919. 6. 28, 경성복심법원) 및 「陸昌柱 등 판결문」(1919. 7. 31, 고등법원).

9) 高第九八三三號, 1919. 4. 4,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三十七報)」(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 I 卷, 505쪽) 및 朝鮮憲兵隊司令官 發信 電報, 1919. 4. 6(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 I 卷, 515쪽).

10) 청산시위는 재판판결문이 남아 있지 않아 발굴과 포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1992년 청산면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犯罪人名簿』가 발견되

한편 4월 8일 밤에는 군서면 오동 현병주재소 관내에서 약 50여 명의 주민이 독립만세를 고창하였으나 현병이 출동하여 곧 해산되었다.¹¹⁾ 이원과 청산 이외의 3·1운동 참여 유공자로는 군서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순구가 있으며, 공주 정안 만세시위에 참가한 정화순과 청주 만세시위에 참가한 이수천은 옥천 출신으로서 타지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례이다.

3·1운동 다음으로 많은 운동계열은 국내항일로, 9명이 서훈되었다. 국내항일 계열로는 옥천에서 한약상을 운영하며 곤궁한 농민을 지원해 주고, 일제의 정책을 반대했던 류재영, 1926년 倡義團 활동에 참여한 김운용·송암우·정명옥, 3·1운동 이후 임시정부와 연계하여 군자금 모금 활동을 벌인 양한위, 1921년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고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유인물을 경찰서에 게시했던 유궁렬, 1939년 옥천군수 최병협이 친일 투고기사를 꾸짖는 편지를 보낸 유재혁, 1920년경 군정서에서 보내온 선전 문서를 옥천군청 등사판으로 등사했던 임선재 등이 있다.

의병 참여자는 6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는 옥천지역의 의병이 활발하지 못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 까닭은 동학혁명 때 당한 가혹한 피해의 기억과 여파로 말미암은 것인데, 따라서 전기와 중기의병은 거의 전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의병전쟁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후기의병 때에는 무장 항쟁의 맥락을 계승하며 산발적이나마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광준회는 후기의병기 장운식 의진에 참여하여 옥천과 금산 등지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였고, 김응선은 후기의병시 문태수 의진에 참여하였다가 이후 창의단 의열투쟁 계획에

어 시위 참여자 14명의 인물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태형 90도 이상 처분자가 포상될 수 있었다. 2018년 독립유공자 서훈기준 개선으로 태형 90도 이하 처분자의 서훈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직 신업이(태형 60)·안대봉(징역 10월)·안소석(징역 1년)·최남석(태 90) 등 4인은 자료의 불비로 서훈되지 못한 상태이다.

11) 高第一—〇一四號, 1919. 4. 11,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四十四報)」(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第I卷, 593~594쪽).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권춘경은 1907년 문의에서 홍사과 의진에 참여하여 충청·경상·전라 등지에서 활동하였으며, 박종규와 백인섭은 1908년 석주사 의진에 참여하여 군자금 모금 활동을 벌였다. 오형덕은 1895년 문석봉의진의 중군장이 되어 활동한 인물이다.

학생운동 참가자로는 1926년 수원농립 재학 중 항일 학생결사인 健兒團에 참가하였던 육동백과, 1926년 광주농업학교 재학 중 醒進會에 참여하였다가 광주학생독립운동사건에 연루된 정종석이 있다. 의열투쟁 참가자로는 나인영 오기호 등 3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을사오적 처단을 기도하였던 박종섭과 지팔문이 있다.

이 외에 해외에서 활동한 운동계열로는 중국 방면 3명(곽중선·김규홍·전좌한), 만주방면(김응선)·임시정부(곽중규)·미주방면(김현구) 각 1명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운동계열 분류에 따른 것이나, 분류 기준이 시기에 따라 바뀌는 등 일관되지는 못하다.¹²⁾ 현행 국가보훈처의 운동계열 분류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옥천 출신 독립유공자 운동계열별 분류

운동 계열	3·1 운동	국내 항일	의병	중국 방면	의열 투쟁	학생 운동	만주 방면	임시 정부	미주 방면	계
인원	26	9	6	3	2	2	1	1	1	51
(%)	(50.9)	(17.6)	(11.7)	(5.8)	(3.9)	(3.9)	(1.9)	(1.9)	(1.9)	(100)

옥천 출신의 독립유공자를 훈격별로 구분하면, 가장 높은 등급은 독

12) 2016년까지의 운동계열별 분류기준은 현행과 달랐다. 즉, 김응선은 의병과 창의단으로, 양한위는 군자금모집, 전좌한은 창의단, 조동호는 임정·중국으로 분류되었으나, 분류기준이 새로 바뀌며 통계에 변동이 있다. 따라서 운동계열별 통계는 절대적이지는 못하다. 한편 이전에 창의단으로 포상된 인물은 전좌한(1963, 독립장)과 김응선(1991, 애국장)인데, 이들은 이른 시기에 포상된 경우이다. 그런데 근래에 포상된 인물은 국내항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창의단사건의 역사적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립장으로 광중규·전좌한·조동호가 수여받았다. 애국장은 김규홍 등 14명이, 애족장은 고한주 등 25명이 받았는데, 가장 인원이 많은 등급이다. 건국포장은 류재영 1명, 대통령표창은 김지수 등 8명이다. 대한민국장과 대통령장 수여자는 없으나, 애국장과 애족장이 많고,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 수여자가 전국적 통계에 비해 적은 것이 특징이다.¹³⁾ 옥천 출신 독립유공자를 훈격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3> 옥천 출신 독립유공자 훈격별 분류

훈격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계
인원(%)	3(5.8)	14(27.4)	25(49)	1(1.9)	8(15.6)	51(100)

Ⅲ. 옥천인의 해외독립운동

1. 윤봉길 의거를 지원한 광중규(1992년, 독립장)·광중선(1992년, 애족장) 형제¹⁴⁾

1891년 이원면 白池里에서 郭俊熙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광준회는 1907년 충북 옥천에서 거의한 張雲植 의진에 참여하여 군자금을 수합하는 활동을 펼치다가 1909년 일경에 피체되어 징역 10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민족의식을 갖고 자주독립의 뜻을 키웠다. 어릴 때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였고, 미국 선교사들의 전도

13) 2020년 11월 현재 전국의 독립유공자는 16,282명으로 이 중 대한민국장 30명(0.18%), 대통령장 92명(0.56%), 독립장 823명(5.05%), 애국장 4,395명(26.9%), 애족장 5,880명(36.1%), 건국포장 1,360명(8.35%), 대통령표창 3,702명(22.7%)이다.

14) 경상북도경찰부 편, 1934, 『고등경찰요사』; 이현희, 2001, 『대한민국임시정부사』, 해안.

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29세 때인 1919년 3월 고향인 옥천군 이원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일본경찰에 붙잡혀 대전형무소에서 3개월간 복역하였다. 1921년 9월 중국 상하이로 망명, 1922년 3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비서로 취임하였다가 곧 비서장으로 승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4년 5월 상하이에 있는 仁成學校의 교사가 되어 동포 자제의 민족사상을 고취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25년 3월 18일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임시대통령 李承晩을 탄핵하는 의안을 제출하였고, 탄핵심사위원이 되어 면직 처리하였다. 1926년에는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 안에 명성사진관을 개업하여 비밀연락 장소로 제공하였다. 명성사진관은 1931년 9월 尹奉吉의 은신처로 사용되었고, 동생 郭重善은 상하이의 지리와 풍습 등 정보를 수집해 전달하는 사전 작업으로 의거를 도왔다.

1927년 10월 상하이 僑民團議事會 선거에서 단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고, 이해 全民族唯一獨立黨促成會 간부로, 1929년 滬韓國獨立運動者同盟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31년 11월부터 임시의정원의 충청도의원으로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 이후 일본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重慶으로 갔다가 1933년 4월 귀환하였다. 상하이에서 은신하던 중 밀정의 제보를 받은 일본총영사관 소속 경찰에게 曹奉岩·金明時 등과 함께 좌우 합작을 추진하는 조선 단일공산당사건으로 붙잡혔다. 신의주로 압송되어 그 해 12월 신의주 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35년 5월 가출옥하여 天津에 머물며 상하이와 연락을 취하던 중 丙寅義勇隊에서 활동하였고, 이후 石家莊으로 이주하여 해방 직전까지 독립운동에 종사하였다.

곽중선은 1907년 곽준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922년 상경하여 만국성서연구회에서 성서보급 업무에 종사하며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영어를 배우며 생활하였다. 1925년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던 형 곽중규의 부름에 따라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1926년 1월 1일 대한민국임

시정부의 외곽단체인 비밀결사 丙寅義勇隊에 가입하였다.

1927년에는 黃埔軍官學校에 입학하였다가 이듬해 학교 내에서 소요가 일어나자 자진 퇴교한 뒤, 1929년 상하이의 영국 전차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형 광중규의 지시에 따라 윤봉길에게 상하이의 지리와 풍습 등을 안내하며 편의를 제공하였다. 광중규가 신의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텐진에 은신 중일 때, 비밀연락을 취하며 상하이에 있는 형의 가족을 돌보았다. 1935년 9월 20일 상하이 남경로에서 일제의 밀정으로로부터 저격을 받아 향년 28세로 순국하였다.

2. 무장투쟁을 위해 둔전병 계획을 추진한 김규홍 (1998년, 애국장)¹⁵⁾

1872년 옥천읍 門井里에서 부친 命性和 모친 延日 鄭氏 사이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조부 東敎로부터 한학을 수학하였다. 1902년 內部主事를 시작으로 1905년 崇陵 參奉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임하였다. 이후 다시 6등의 품계에 임명 되었다.

1901년에 中橋義塾 교원으로 활동하였고, 1905년 8월경 옥천에 세워진 進明學校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였다. 이후에도 옥천에 彰明學校를 설립하는 등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에 투신하였다. 1906년에는 대한자강회에 가입하였다.

고종이 강제로 퇴위된 1907년 7월경, 그는 고종으로부터 해외에 맡겨둔 왕실 경비를 가지고 중국에서 한인무관을 양성하라는 밀명을 받았다. 그와 고종과의 관계는 외가 쪽 친척인 판서 李耕植의 부인과, 祕書監卿 趙民熙·廣濟院長 康洪大 등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15) 배경환, 2011, 「신해혁명과 한국 : 김규홍의 광둥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12, ; 2019, 「독립운동과 친일의 경계」, 『역사학보』 244 ; 손영홍, 2015, 「김복의 둔전병제 독립운동과 홍화실업은행」, 『한국근현대사연구』 72 ; 김호진, 2016, 「범재 김규홍의 생애와 독립군 양성 계획」, 『한국근현대사연구』 74.

고종의 밀명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 망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일본 측에 발각되면서 체포되었다. 이후 일본 헌병대에 6개월간 감금되었다 풀려났다. 이후에도 일본의 엄중한 감시를 받았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망명하여 한인 무관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감시와 간섭으로 이 양성 계획은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다만, 중국의 陳炯明과 唐紹儀로부터 추후 지원을 약속받았다. 김규홍은 상하이 망명 이후 金復으로 개명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廣東으로 옮겨 활동을 시작했다.

1911년 중국에서 武昌蜂起를 계기로 辛亥革命이 일어났다. 광동에 있던 그는 同盟會 회원들이 추진하고 있던 反清 혁명운동에 가담하며 비밀문건을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1912년 8월, 혁명 성공 후 廣東都督府가 수립되자, 광동지역 군사와 치안을 담당하는 廣東總綏靖處의 參議에 오르게 되었다. 이어 1913년 초 최고 군사기구인 廣東護軍使署의 顧問員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곧 ‘討袁運動’이 시작됨에 따라 홍콩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다.

1913년 12월 홍콩에서 朴殷植과 함께 『香江雜誌』를 창간하였다. 이는 중국 측 인사들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그가 실무 책임을 맡았다. 1916년 7월 하순에는 상하이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해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일은 오스트리아인 킨들러(キンドラー, Shaller Kindler, 일명 Max Kindler)의 지원 요청에 따라 李宇榮(일명 李徹)과 함께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킨들러가 독일총영사관으로부터 획득한 2,000원 중에 1,500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독일 측에 감금되면서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朴容萬과 함께 독립군 양성 계획을 추진하였다.

1919년 11월 초 중국 측 인사들과 함께 興國實業銀行을 창립하였다. 홍콩실업은행은 중국의 黑龍江·吉林·奉天 등의 농지 개간사업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자본금 총액을 銀幣 200원으로 하고, 첫 번째 수납금을 총액의 25%로 해 주식을 공모하였다.

자본금 공모와 함께 둔전병제도 추진하였다. 1920년에 러시아 측과

둔전제를 기반으로 한 독립군 양성을 계획하였다. 포타프·여운형(呂運亨)·천지용명과 함께 시베리아에 일본이 간섭할 수 없는 장소를 빌려 한인으로 이루어진 6개의 사단을 양성할 것을 레닌정부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이 일본 측에 의해 발각되면서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1920년 7월에는 박은식의 주선으로 安昌浩를 찾아가 시베리아에 세워질 6개 사단의 총지휘를 부탁하였는데 다섯 가지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이 일로 안창호는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상하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 베이징으로 활동무대를 옮기게 되었다. 베이징에 도착한 후 李會榮, 申采浩 등과 함께 군사통일회의를 추진해 나갔다. 1922년 베이징군사통일회가 조직되면서 간사직을 맡았다.

이 무렵, 흥국실업은행 사업도 함께 추진하였다.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 崔胤東을 국내에 파견해 주권을 모집하도록 했으며, 그 역시 1921년 고향인 옥천에 잠입해 활동하였다. 1922년 1월 朴醉石과 함께 흥국실업은행의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 遼陽縣에 머물며 모금활동을 하다가 일본에 발각되었다.

자금 마련이 쉽지 않자 1922년 2월, 중국인 張昭文을 찾아가 흥국실업은행의 창립을 논의하였고, 몇 차례의 논의 끝에 은행 설립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1922년 5월 13일 장자오원의 주도 하에 은행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이때 은행의 이름을 興華實業銀行으로 변경하였다. 흥화실업은행은 正門外 觀音寺 거리에서 창립되었고, 은행장은 吳鵬程이 맡았다. 한편, 1922년부터 1923년까지 박용만·김태석과 함께 베이징의 石景山에 있는 사찰의 땅을 임대해 수전 농장을 경영하려고 했다. 이는 그가 보증을 서고 흥화실업은행에서 2천 원을 빌린 후 박용만을 주축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 흥화실업은행은 예정한 출자금 총액을 충당하지 못하면서 은행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박용만 역시 자금을 계속 조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결국 사찰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토지를 사찰에 되돌려주게 되었다.

스징산농장을 경영하려던 계획이 실패한 이후에도 둔전병제를 실시하기 위해 적당한 지역을 계속 모색하였다. 그 가운데 내몽골 包頭를 시찰하고 이곳에서 둔전병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은행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투자가 무산되어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홍화실업은행의 운영은 더욱 악화되었다. 총지배인과 부지배인이 사퇴한 후 장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내부에서는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고발이 잇따르게 되었다. 결국 1924년 2월 정식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은행 정산 일로 중국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면서 1924년 10월 베이징을 떠나 행적을 감추었다.

1926년 馮玉祥 세력을 이용해 다시 한 번 박용만과 함께 둔전병제를 모색하였으나, 1928년 박용만이 암살당하자, 충격을 받고 베이징을 떠났다. 1929년 張學良 휘하에 들어가 在滿韓人入籍調査會組織委員長에 임명되었다. 이후 1934년부터 텐진에서 은둔생활을 하던 중 이질에 걸려 1936년 8월 16일 사망하였다.

3. 국내 의병에서 만주 독립군으로의 전환을 실증하는 김응선(1991년, 애국장)¹⁶⁾

1883년 1월 2일 伊南面 江淸里 45번지에서 태어났다. 『기려수필』에는 대전군 柳川面 大成里에 거주했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평소 용맹스럽고 체격이 컸다고 한다.

진라도 일대에서 의병을 일으킨 文泰洙 의병장 휘하에서 항일운동을 펼쳤다. 의병이 해산된 후 만주 輯安縣으로 건너가 正義團에 가입하였다. 상하이와 만주를 오가며 항일운동을 하던 중 倡義團 단원이었던 全佐漢과 桂義山을 만났으며, 이들과 경성에 있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주요 상징 건물을 폭파하기로 약속하였다.

김응선은 1925년 정의단에서 파견한 6명과 함께 국내로 잠입하였다. 그는 전좌환·계외산 등과 함께 조선총독부 경성부청의 신청사·조선

16) 金承學, 1965, 『韓國獨立史』, 獨立文化社 ; 宋相燾, 1971, 『騎驢隨筆』, 국사편찬위원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독립운동사』 1권.

신궁·조선은행·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조선의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포고문을 뿌리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1925년 9월 초순 충남 서천군 舒川面 支石里에 있던 수리조합에서 일하던 매부 鄭元得으로부터 다이너마이트 10개, 뇌관 10개, 도화선 약 1丈 5尺을 양도받았다.

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재료를 모으는 활동은 1925년 12월 초순까지 계속되었다. 전북 금산군 郡北面 上谷里에 거주하는 李堅國, 충북 옥천군 옥천면 三陽里에 사는 裴錫圭의 집 등에서 클로르산칼륨 5병, 노트, 철분 초자 파편과 같은 재료를 수집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폭탄 6개를 제조하였다. 이후 폭탄의 위력을 시험하기 위해 1개를 鎭威산중에서 폭발시켰고, 나머지 폭탄 5개는 서울로 운반하였다.

그는 1926년 1월 28일, 서울을 구경한다는 명목으로 金云用·鄭明玉·宋岩于를 데리고 서울로 들어왔고, 다음날에는 계의산과 함께 거사 장소를 순찰하였다. 1월 30일에는 김운용·정명옥·송암우에게 주요 시설을 폭파시킬 계획을 알리고 참여 약속을 받았다. 그들은 역할 분담을 하였다. 즉 1월 31일 새벽을 기해 그는 조선은행, 정명옥은 조선총독부 신청사, 김운용은 경성부청 신청사, 송암우는 종로경찰서, 계의산은 조선신궁에 폭탄 1개씩을 투척하고 포고문을 살포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경기도경찰부의 습격에 의해 淸進洞 진일여관에 숨겨놓은 폭탄과 포고문이 발각되었다. 그는 일본 경찰의 추격을 피해 봉천으로 갔다가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이 계획의 실패 원인을 둘러싸고 전좌환과 계의산이 경기도경찰부 고등과 카와사키(河崎), 다나베(田邊) 경부의 밀정이기 때문이란 논란이 있다.

결국 그는 1927년 8월 31일, 경성지방법원 형사부에서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폭발물취체규칙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재판을 받았던 전좌환은 징역 5년 및 벌금 50원, 김운용, 정명옥, 송암우, 김동준은 각각 징역 1년 6월, 정원득은 징역 4월, 정석조는 금고 3월을 선고받았다. 그의 출옥 이후의 행적은 알려

지지 않았으며 1944년 4월 30일에 사망하였다.

4. 미주지역의 독립운동과 한인 언론을 주도한 김현구(1995년, 애국장)¹⁷⁾

1889년 부친 金基萬과 모친 延日 鄭氏 사이에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 미국에서 활동할 때 Henry Cu Kim이라는 이름을 썼다.

김현구는 이종사촌인 김규홍을 통해 신식 학문을 접하고 근대의식을 키웠다. 1906년 서울에 올라와서 김규홍의 도움으로 계산보흥학교에 입학하여 근대교육을 수학하였다. 이어 원영의의 도움으로 普成學校에서 공부했다.

한때 김규홍을 따라 중국 유학을 꿈꿨으나 그의 체포로 불발되자 미국 유학을 결심하였다. 원산-블라디보스토크-시베리아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 1909년 4월 뉴욕에 도착하였다. 이 과정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鄭淳萬을 만나 여비 도움과 함께 미국에서 활동 중인 朴容萬을 소개받았다.

미국에 도착해 박용만을 찾아 덴버로 갔으나 그가 학업을 위해 네브래스카로 떠난 뒤여서 윤병구의 도움으로 4개월간 철도노동자로 일했다. 1909년 가을 네브래스카로 가서 박용만이 링컨시에서 운영하던 한인 학생기숙사에 머물고 초등학교에 입학해 영어를 공부했다. 1910년부터 1913년까지 헤스팅스대학 예비과에 등록해 대학 진학을 준비했다. 이 기간 공부하는 동안 박용만이 독립운동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헤스팅스 한인소년병학교에 교사로 참여해 한글과 문법을 가르쳤고, 네브래스카 대한인거류민회에도 참여하였다.

1913년 9월 뉴욕주에 있는 코넬대학교에 입학했으나 1914년 오하이오주립대학교로 옮겨 1917년 6월 동 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1922

17) 고정휴, 2004,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출판부 ; 안형주, 2007, 『박용만과 한인소년병학교』, 지식산업사 ; 홍선표, 2011, 『자주독립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연세대학교출판부 ; 김선아, 2016, 「金鉉九의 재미언론활동과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76.

년 1월 캘리포니아대학교(UC버클리대) 철학과 대학원에 입학해 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서재필이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승만, 정한경과 함께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회의’(일명 ‘대한인총대표회의’)를 개최할 때 참가해 결의문을 작성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미주 동포사회에서 발행하는 『신한민보』의 편집인으로 많은 논설과 글을 써서 한인사회의 여론을 이끌었다. 그는 1920년경까지 이 활동을 하였고, 1921년 3월에는 명예기자로 활동했다. 『신한민보』 편집인이 된 후 대한인국민회의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1920년 대한인국민회 샌프란시스코지방회 학무원에 선임되었고 1920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주관한 재미국민대회 때 평의원으로 참가했다. 1921년 북미지방총회 학무원이 되었고 1922년에는 대의장으로 활동했다.

1924년 4월 홍언, 백일규, 강영승, 강창준 등 12명과 以文會를 발기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단체라기보다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공유하여 재미한인사회에 새로운 문화운동을 펼치기 위함이었다.

1925년 3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미위원부 폐지령을 내리고 이승만의 대통령직을 면직처리 한 직후인 1926년 9월 이승만의 요청으로 許政에 이어 구미위원부 위원이 되어 활동하였다. 1928년 3월 이승만이 하와이로 올 것을 요청했으나 구미위원부 유지문제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가 1929년 10월 하와이로 건너갔다.

하와이 도착 이후 이승만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 대한인교민단의 서기 겸 재무이자 『국민보』 주필을 맡았다. 그리고 호놀룰루 동지회지방회장, 『태평양잡지』 편집인, 동지회 중앙이사부 이사원 등 주요 중책을 맡았다. 1930년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호놀룰루에서 同志美布代表會를 개최하여 향후 동지회 중심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활동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대회 이후 이승만의 독선적인 활동에 실망하면서 1930년 8월 26일 『국민보』 주필직과 교민단의 재무 및 서기직에 대한 사직청원서를 공개 발표하고 이승만에 대항했다. 이 일로 하와이 한인

사회는 김현구를 지지하는 대한인교민단과 이승만을 지지하는 동지회 간에 첨예한 갈등과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정에서 교민단의 승리로 판결 내렸으나 한인사회는 여전히 분열되었다.

1931년 9월 일제의 만주침략을 규탄하고 대외 선전의교활동을 위해 동년 10월 25일 대한인교민단 산하에 대한인홍보부를 설치할 때 부장 정두옥과 함께 서기를 맡았다. 당시 그는 미 대통령 등에게 청원서를 보내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였다.

1933년 2월 1일 기존의 하와이 교민단을 해소하고 대한인국민회를 복설하자 서기 겸 재무이자 『국민보』 주필을 맡았는데, 그의 주필로서의 언론 활동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40년 10월 13일 연합한인위원회를 결성하고 10월 24일 조직을 인선할 때 관리부 부의장과 조사부 의장에 선임되었다. 1941년 5월 4일 새로 조직된 재미한족연합 위원회 의사부에서는 국방위원과 국방위원장에 선임되어 미국에 대한 국방 후원활동을 주도했다.

해방 후 1951년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으로 활동했고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인 1962년 도미한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1967년 8월 14일 노환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생을 마쳤다. 생을 마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한 『김현구 자서전』을 비롯해 이른바 ‘3만전’ 등을 남겼다.

5. 만주 독립군으로서 국내 의열주쟁을 계획한 전좌환(1963년, 독립장)¹⁸⁾

1899년 옥천읍 죽향리에서 전보현과 어머니 문화 류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비교적 부유하게 옥천에서 세거해 온 그의 집안은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일제에 의해 몰락했다고 한다. 그는 종조부 全興奎의 후원으로 옥천공립보통학교(현, 죽향초등학교)와 서울 永化學堂에서 신학문을 공부하였다. 그러던 중 1920년 12월 종조부에게 ‘京城商業實業

18) 김건실, 2015, 「충북의 독립운동가 열전 -전좌환」, 『충북일보』 2015년 7월 19일자.

團'이라는 비밀결사로부터 납세불납운동 문서가 전달되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군정서'의 서명과 함께 「명령」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는 고향 후배 任善宰와 함께 문서를 인쇄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옥천군청 앞 게시관 등 여러 곳에 게시하였다. 이로 인해 전좌한은 1921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출판법 위반과 치안방해죄로 1년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6년 그는 金應先, 桂義山과 함께 다시 항일운동에 뛰어들었다. 김응선은 당시 만주지역 정의단 소속으로 이전에 신돌석 의병진에서도 활동했던 인물이었다. 전좌한은 기차 안에서 창의단 소속이라고 자신을 밝힌 계의산을 만났다. 그는 김응선에게 계의산을 소개하였고, 셋이 함께 의열투쟁을 펼치기로 약속하였다.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항일을 위해 '마땅히 죽어야 할 일곱 부류의 대상'을 정하고 『독립신문』에 '七可殺'이란 제목으로 처단 대상을 발표하였다. 김원봉이 1919년 말에 창단한 의열단 역시 '칠가살', '오과괴'로 대변되는 신채호의 「朝鮮革命宣言」을 행동강령으로 표방하였다. 이후 1920년대 독립운동은 조선총독을 비롯한 일본 관리, 친일 부호, 밀정, 모반자 등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과, 파괴 대상으로 지목된 조선총독부, 동양척식회사, 매일신보사, 경찰서 등 일제의 주요 통치기관을 공격하는 의열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전좌한은 폭탄 제조기술이 있는 김응선과 함께 비밀리에 폭탄을 제조하였다. 자금은 계의산이 창의단을 통해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들이 폭파하기로 결정한 기관은 경성의 조선총독부 청사 두 곳과 조선은행, 조선신궁, 종로경찰서 등이었다. 전좌한은 다섯 기관의 폭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응선에게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동지를 요청하였다. 김응선은 송암우 등 3명의 고향 청년에게 경성을 구경시켜 준다는 구실로 1927년 1월 28일 경성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일제 헌병대에 탐지되어 송암우 등 3명의 청년이 숙소에서 체포되었다. 거사 전날 계의산과 김응선이 잠시 전좌한을 만나러 나간 사이 헌병대가 그들의 숙소를 급습하였던

것이다. 김응선과 계의산은 만주 奉天으로 도주하였으나, 이후 김응선은 체포되었다. 전좌환은 매제인 申華秀의 집에서 몇 개월간 숨어 지내다 만주로 건너갔다.

전좌환은 매제의 소개로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양기탁을 찾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集安을 거점으로 국내외에서 격렬한 무장활동을 전개하던 참의부 소속의 李應瑞를 알게 되었다. 그는 이응서·南正·金鳳俊 등과 함께 조선혁명군대본영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전좌환은 그해 초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조선총독부 폭파 계획을 다시 거행하기로 이들과 합의하였다. 거사 날짜는 경복궁 자리에 새롭게 청사를 건설한 조선총독부 낙성식 날인 10월 1일로 잡았다.

전좌환은 선발대를 데리고 무기를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먼저 국내로 잠입하기로 하였다. 선발대 일행은 安東(현재의 단동)에서 국내로 잠입하려 하였으나 경계가 삼엄해 무기를 휴대하고 국경을 통과할 수가 없었다. 일행은 할 수 없이 무기와 서류 등은 소포로 발송한 후 열차편으로 경성에 들어와 소포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소포의 내용물이 경성우체국에서 발각되면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전좌환·남정·김봉준 등 선발대는 이번에도 거사를 실행에 옮겨보지도 못하고 모두 체포되었다. 전좌환은 두 차례에 걸친 일제 주요시설 폭파 미수혐의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다시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뒤 1931년 3월 가출옥하였다. 해방 이후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였으며 1986년 사망하였다.

6. 다양한 이념을 수용하여 불굴의 투쟁을 벌인 조동호(2005년, 독립장)¹⁹⁾

19) 국가보훈처 공훈록에 조동호의 운동계열은 국내항일로 되어 있으나, 중국에서의 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기로 한다. 조동호에 대해서는 李炫熙, 1992, 『趙東祐抗日鬪爭史』, 청아 ; 김정의, 2007, 「유정 조동호와 조선건국동맹」, 『문명연지』 19 ; 황묘희, 2007, 「新韓青年黨과 榴亭 趙東祐」, 『문명연지』 19 ; 鄭英燾, 2008, 「榴亭 趙東祐의抗日獨立運動研究」, 『역사와 실학』 3 참조.

1892년 청산면 白雲里에서 趙明夏와 모친 박씨 슬하의 3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豐壤인데, 趙東祐로 표기되기도 한다. 1896년부터 향리에서 한학을 공부하였고, 지전리에 청산사립신명학교(현 청산초등학교)가 개교하자 입학하여 3년 동안 수학하였다.

1908년 測量學校에 입학하여 수학하던 중 呂運亨과 교우하였다. 당시 그는 여운형으로부터 큰 감화를 받아 기독교에 입교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일생동안 함께 독립운동을 하면서 동지적 관계로 지냈다. 1914년 여운형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 南京에 있는 金陵大學(현, 난징 대학) 중문과에 입학하였다. 이 시기 상하이로 왕래하며 同濟社에 참여하여 이사로 활동하였다. 대학 졸업 후 상하이에서 중국인 黃覺이 경영하던 『救國日報』 기자로 일하였으며, 이후 『中華新報』 기사를 검직하였다. 한편 1918년 여운형·申錫雨 등과 함께 상하이재류 500여명 한인교포의 친목단체로서 上海高麗僑民親睦會를 조직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제헌의원으로서 활동하였고, 임시의정원 충청도위원과 국무위원을 겸직하였다. 또한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제출하기 위해 임시사료편찬회를 조직하자 李元益·金秉祚 등과 『한일관계사료집(韓日關係史料集)』 4권을 편찬하는데 주역이 되었다. 이해 車利錫 등과 함께 『독립신문』의 기자로서 주요 필진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는 1920년 봄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국무총리 李東輝를 중심으로 ‘공산주의자 그룹’이 결집될 때 참여하여, 출판부 담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무렵부터 사회주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1921년에는 한중 친선 및 한국독립과 중국혁명을 위한 상호협조를 목적으로 韓中互助社를 조직하고, 한국측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듬해에는 金九·崔錫淳·여운형 등과 韓國勞兵會를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1921년 당시 공산주의운동 내에서 이른바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 사이의 경쟁이 심해지자, 그해 5월 이동회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 그룹’이 고려공산당(상해파)으로 개편될 때 참여하지 않고 한인사회당 세력과 결별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고려공산당(이르쿠츠크파) 상

해지부를 조직하고 책임비서를 맡아 활동하였다. 1922년 1월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極東民族大會에 여운형 등과 함께 조선 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그는 1923년 12월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鄭泰熙와 함께 귀국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제 경찰에 붙잡혀서 종로경찰서에 열흘 동안 구금되었다가, 동아일보사의 도움으로 12월 22일 석방되어 일단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1924년 1월부터 『동아일보』의 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해 11월 19일 新思想研究會가 개칭하여 새로 발족한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火曜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어 1925년 4월 17일 金在鳳 등과 함께 朝鮮共產黨을 창당하고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이때 그는 당의 강령과 규약을 기초하고, 코민테른의 승인을 얻기 위한 대표로 모스크바에 파견되었다. 그는 상하이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동지들을 만나 조선공산당의 창당과 경과를 설명하였다.

상하이에 머물던 1928년 2월 3일, 일본영사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압송되었다. 그는 부산을 거쳐 서울로 압송되어 2월 7일 종로경찰서에 유치되었다. 이해 6월 18일, 그는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32년 11월 출옥 후 『조선중앙일보』 논설부 기자로 활동하는 한편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벌이다가 1934년 1월 다시 일경에 검거되어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또 다시 옥고를 치렀다. 1936년 2월 26일 출옥하여 『조선중앙일보』에 잠시 복직하였으나 일제의 감시로 은둔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1944년 8월, 일본의 패망을 확신한 그는 여운형과 함께 朝鮮建國同盟을 조직하였고, 선전부장이 되어 활동하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처럼 중요한 활동을 벌인 그가 2005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독립유공자에 서훈된 것은 독립운동사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 때문이다.

IV. 독립운동가와 사적지 선양사업의 과제

옥천은 한국 근대 민족운동사에서 중요한 기억과 흔적이 있는 지역이다.²⁰⁾ 1894년 조선의 농민들은 부패한 봉건왕조에 분연히 항거하여 일어났다. 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국내외에서 독립투쟁을 펼쳤다. 그런데 옥천 지역사회가 이 같이 소중한 근대의 역사적 자산을 올바로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녔는가는 의문이다. 동학혁명의 중요한 史實, 예컨대 청산 집회나 문바위 동학기념공원을 군청 홈페이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독립운동의 기억과 기념시설도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의 독립운동 현충시설은 958개소이고, 이 가운데 충북에는 46개소의 독립운동 현충시설이 등록되어 있다. 이는 전국 대비 4.85%에 지나지 않는 영성한 형편인데,²¹⁾ 시군별로는 청주가 12개소로 가장 많고, 제천 7, 충주·괴산·영동 각 6, 음성 3, 옥천 2, 보은·증평 각 1개소, 단양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옥천의 독립운동 기념시설은 이원면의 「기미 3·1운동기념비」와 군서면의 「충민사」 2개소가 전부이다.²²⁾ 이원의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기미3·1운동기념비」는 1958년에 건립된 것이다. 이원의 3·1운동 참여 공적으로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공재익·김용이·박만하·배용석·육창주·이금봉·이면호·이호영·

20) 민족운동은 반봉건 근대화운동·반제 해방투쟁(독립운동)·민족통일운동이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을 지닌 어의이다.

21) 지자체별로 가장 많은 곳은 경북(161)이며, 그 다음이 전남(115)-경남(110)-전북(105)-경기(88)-충남(80)-서울(80)-강원(50)으로 광역시를 제외하고 道 단위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실정이다. 현충시설의 유형별로는 비석 형태가 절반이 넘는 24개(52.1%)로 가장 많고 사당과 장소가 5개, 동상 4개, 기념관 3개, 생가와 탑이 2개이다.

22) 국가현충시설로서 독립운동시설은 전국 878개소, 충북 43개소가 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현충시설 정보서비스(<http://mfis.mpva.go.kr/hokukModelIn/HokukModelInList.do?typo=1>) 참조.

허찬·허상구·허상기·허상회·허찬 등 13명인데, ‘九賢碑’라는 이 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까지 확인된 독립유공자(공재익·김용이·육창주·이금봉·이호영·조이남·허상구·허상기·허상회)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누락되어 있다.²³⁾ 곧 기억과 기념의 시간은 1958년에 멎어져 있는 실정이다. 충민사는 2002년 김순구의 영정과 순국선열 25인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건립한 사당이다. 옥천 출신의 많은 독립운동가 중 김순구를 기리는 기념시설 밖에 없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옥천의 독립운동을 종합적으로 상징하는 조형물 건립이 필요하다. 옥천 읍내에 접근성이 용이한 공간을 선정하여 부조물과 탑의 형태를 이루는 조형물, 가칭 ‘옥천독립운동기념탑’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옥천의 독립운동 사실을 약기하고, 옥천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새겨두면 훌륭한 역사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다. 근래 지자체들이 지역민들에게 고장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앞다투어 조형물을 건립하고 지역의 독립운동사 책자를 발간하며 기념관까지 세우는 곳도 있다. 옥천도 이런 추세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옥천에는 2011년 옥천읍 마암리 충혼공원에 세운 ‘독립유공자탑’이 있다. 여기에는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든 남녀 애국선열의 상이 조성되어 있고, 옥천 출신 독립유공자 57명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3·1운동으로만 특화된 조형물도 아쉽고, 57명의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탑의 명칭을 독립유공자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일제강점기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나섰고, 이 가운데 객관적 문서에 의해 공적이 입증된 분이 독립유공자이다. 그렇다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독립운동 참여자는 기념과 추모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마는 것이다.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분의 명단을 새겨두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분들만 주인공이 되는 것은

23) 비석의 ‘九賢’ 가운데 趙伊南은 판결문에 없는 인물이라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재판에 회부된 육창주 등 8인 가운데 7인은 포상되었으나, 유일하게 許櫟(심천군 마곡리, 농업, 23세)은 미포상 상태이다. 許諫은 이들과는 별도로 1919년 4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새로운 조형물을 조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명칭을 ‘옥천독립운동기념탑’으로 고치고 옥천의 대표적 독립운동 기념물로서 국가현충시설로 등록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한 독립운동의 현장에 표석 등 기념물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 우선 1909년 10월 29일 밤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한 문태수 의진의 이원역 습격사건 현장인 이원역에 조그마한 표석이라도 세우면 좋겠다. 이 의거는 『梅泉野錄』에도 기록된 것으로²⁴⁾ 옥천의 의병활동을 대표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찍이 옥천에서 근대교육을 열어갔던 진명학교와 창명학교의 현장 및 충북에서 가장 먼저 국채보상운동에 부응하여 1907년 3월 3일 「國債報償斷煙義務會」를 조직하였던 사실 등 계몽운동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표석도 필요할 듯하다. 그래야 한말 국권회복운동에 나선 옥천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옥천의 대표적 3·1운동이자, 충북지역의 3·1운동사에서도 높이 평가되는 이원과 청산의 3·1운동 현장에 조그마한 표석이라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원 3·1운동의 사실을 기록한 ‘구현비’ 옆에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추후 포상자들까지 기록한 표석을 함께 세울 필요가 있다. 2019년 12월 청산고등학교 앞 백운공원에 「청산3·1독립만세운동기념탑」이 세워져 있으나,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다.²⁵⁾ 기념물은 역사의 현장에 있을 때 가치가 있고 교육적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따라서 시위 현장인 청산 장터나 발포 주체인 청산헌병주재소 자리에 현장을 알리는 표석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왕에

24) 황현, 『매천야록』 권6(2005, 『역주 매천야록 하』, 문학과 지성사, 603쪽).

25) 「청산3·1독립만세운동기념탑」은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설립하였다. 이 조형물은 청산 3·1운동의 사실과 청산 출신 독립운동가를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각종 태극기 20점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3·1운동이나 독립운동과 전혀 무관한 태극기가 다수 포함되는 등 구성과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한 느낌이다.

건립된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들은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로 등재되도록 하여 정부가 유지 관리를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옥천의 독립운동사 선양사업에서 가장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인물의 평가이다. 일제강점기 인물의 공과를 정확히 밝히고 엄정하게 평가하여 선양하는 것은 굴곡진 근현대사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다. 국가보훈처는 2019년부터 ‘독립유공자공적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유공자 전원에 대한 공적 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봉오동 전투의 주역인 최진동과, 우리 근대사에 대표적 문인의 부친을 비롯하여 서훈 삭탈자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공식 발표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간 학계에서 행적에 시비가 논의되던 인물들은 모두 정밀한 공적 검증 대상이 될 것이고, 이상 행적이 명백히 규명될 경우, 서훈 삭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옥천군청 홈페이지(문화관광-옥천의 인물)에 옥천 출신 인물 20명이 소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金文起와 趙憲, 宋時烈 등 7명은 전 근대 인물이고 13명은 근현대 인물인데, 근현대 인물 중 朴중규·김규홍·김순구·전좌한·조동호 등 5인의 독립운동가가 소개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옥천의 대표적 인물로 여겨졌던 인물인 전좌한과 김규홍에 대해 행적에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전좌한에 대해서는 그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행적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전좌한은 앞장에서 개술한 바와 같이, 1920년대에 두 차례에 걸친 옥고를 치렀고, 이 공적을 인정받아 생존해 있던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다. 그런데 그의 행적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인물 가운데에는 뒤늦게 친일행각이 밝혀진 사례가 종종 있다. 1990년대 연합뉴스와 역사문제연구소 등에서는 친일파가 독립유공자로 둔갑된 사례를 몇 차례 보도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때 전좌한을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었다.

전좌한의 독립유공자 자격 시비가 처음 제기된 것은 한 언론이 ‘독립유공자 밀정 혐의 자료’가 발견 기사로부터 비롯되었다.²⁶⁾ 이 기사

26) 『동아일보』 1984년 11월 28일자.

는 宋相燾의 『騎驢隨筆』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송상도는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현장 답사를 통해 수집하고 자세한 기록으로 남긴 인물이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전좌한과 계의산은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의 경보부였던 카와사키(河崎)와 다나베(田邊)의 밀정이었다. 전좌한이 1차 거의 때 동지들과 같이 잡히지 않았던 것도 폭파사건을 임의로 꾸민 뒤 일제에 밀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가 밀정임에도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폭탄사건에 관련됐을 뿐 아니라, 사육을 위해 동족을 밀고한 행위를 일본인 판사조차 곱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기사는 1963년 전좌한의 공적을 심사했던 독립유공자상훈심의회회가 이런 기록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포상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더 엄밀하게 따진다면 전좌한의 밀정 논란은 그가 체포되어 심리를 받던 일제강점기 당시부터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경찰의 밀정’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공판 때마다 법원의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그의 재판과정은 당시 『동아일보』·『매일신보』 등 언론에 사진과 함께 연일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결국 그는 판사와의 심리과정에서 자신이 카와사키에게 밀고했음을 시인하였다. 카와사키는 경기 일대의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 간부로, 경성에서 발생하는 의열투쟁으로 부심하던 인물이었다. 전좌한은 1차 거사 직전 자신이 밀고했음을 물론, 형사대에 김응선의 존재를 지목해 주었으며, 이후 만주로 갔던 것도 카와사키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자백하였다.

당시 『매일신보』조차 전좌한의 ‘연극에 속아’ 체포된 다른 피고 가족들의 분노와, ‘개인의 부당한 보수를 바라 사건을 날조한 가증가오(可憎可惡)니 엄벌이 필요하다’고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일본인 검사의 논고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1984년 밀정 논란이 다시 일자, 자신은 이 기록을 남긴 송상도와는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그 기록을 믿을 수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였다.

1931년 출옥 이후 그는 경제적으로 매우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한

다. 생활이 너무 곤궁하여 행상하는 부인을 따라 떠돌아다니기도 하였다. 3남 중, 두 아들은 해방 직후 병으로 죽었고, 남은 아들마저 6·25 때 전사하였다. 그는 부인마저 병사하자 고향으로 돌아와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다가 재혼 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거주하였다. 그는 자신의 행적에 시비가 제기되어 있던 1986년 거주지 인천에서 87세의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유해는 ‘가족의 뜻’에 따라 경기도 파주의 낙원공원묘지에 묻혔다. 현재 그의 묘는 가족조차 찾지 않는 무연고 묘로 분류되어 있다. 국립현충원을 선택하지 않은 ‘가족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왜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무덤이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한편 김규홍에 대해서도 2016년 행적 논란이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10월 15일, 한국근현대사학회와 옥천향토사연구회 공동 주관으로 제1회 김규홍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필자는 「옥천지역 근대의 기억과 독립운동가」를 주제의 기조발표를 하였다. 그런데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연실색할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바로 조선군사령관 宇都宮太郎日記에 수록된 그에 관한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²⁷⁾ 이 일기가 公刊된 지가 10년이 되도록 학계에서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반성할 일이나, 너무 놀라운 내용이었다.

필자는 그간 김규홍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논문 지도를 통해 김규홍의 사상과 활동을 규명하도록 한 바 있다.²⁸⁾ 따라서 일기를 보고 받은 충격은 누구 못지않았다. 필자는 즉각 세미나를 기획하고 발표를 준비하던 연구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발표 진행 여부를 상의하였다. 세미나를 취소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도 있었으나, 세

27)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編, 『日本陸軍とアジア政策』(全 3卷), 2007, 日本:岩波書店(이하 『宇都宮太郎日記』로 칭함). 여기에는 金奎興이란 본명을 한차례 밝히기는 하였으나(10월 10일자), 모두 金復으로 표기되어 있다.

28) 김호진, 2016, 「범재 김규홍의 생애와 독립군 양성 계획」, 『한국근현대사연구』 74.

미나 기획 취지를 고려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발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발표에서 이 일기의 존재와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되 김규홍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발표는 연구자와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2017년 8월, 『옥천신문』에서 광복절을 맞아 필자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 물론 김규홍과 관련된 주제였다. 필자는 인터뷰를 거절하였으나, 거듭된 요청에 발언을 편집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하였다.²⁹⁾ 이 인터뷰에서 宇都宮太郎日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되 행적에 대한 성급한 결론 도출보다는 신중한 학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였다. 이해 11월, 옥천문화원은 제2회 김규홍세미나를 주관하였다. 이 때 필자에게 발표 의뢰가 왔으나, 이런 이유로 거절하고 참여하지 않았다.³⁰⁾

이듬해인 2018년에도 옥천 지역사회와 기념사업회에서 김규홍에 대한 선양사업이 계속되었다. 10월 5일에는 ‘김규홍선생기념비설립추진위원회’가 죽향초등학교 교정에 ‘대한민국독립운동의 대부 범재 김규홍 선생’이란 표제로 조형물을 세웠다. 12월에는 옥천군·옥천문화원·김규홍기념사업회가 『김규홍평전』(저자 김상구)을 간행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김규홍학술세미나도 이어졌다. 필자는 잇단 김규홍 선양사업 소식을 접하며 그에 대한 지역사회와 기념사업회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29) 인터뷰는 2017년 8월 16일 9시, 필자의 연구실을 방문한 황민호 국장과 진행하였다.

30) 당시 옥천문화원은 필자에게 유선으로 발표를 요청해 왔다. 필자는 김규홍이 宇都宮太郎에게 보낸 편지가 일본에 존재하고, 宇都宮太郎關係資料硏究會에서 5천통에 달하는 편지를 정리하는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따라서 조만간 편지 내용이 공개되고 확인될 상황에서 추론을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은 선부르고 위험한 일이며, 결코 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 거절하였다. 그러자 옥천문화원은 토론이라도 참여해 달라고 ‘공문’으로 제차 요청해 왔으나 역시 거절하였다. 이 일을 두고 김규홍기념사업회가 「김규홍 밀정설 보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박 교수는 세미나 참여를 거부했고, 참관조차 하지 않았다.”고 필자의 본의를 곡해하여 다소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뜻깊은 해였다. KBS는 광복절을 전후한 8월 13일과 20일, 다큐멘터리 탐사보도 「밀정」 2부작을 기획 방영하며 895명의 ‘밀정’ 명단을 공개하였다. 이 중 제2부는 ‘임시정부를 파괴하라’ 편이었는데, 방송 중 상당 부분이 김규홍에 대한 내용이었다.³¹⁾ 이 방송에서 김규홍이 宇都宮太郎에 보낸 편지가 처음 공개되었다. 편지의 내용은 김규홍의 구체적 행적과 관련된 ‘경악’할만한 것이었다. 그간 소문으로만 알려진 편지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밀정」은 이 편지를 김규홍의 행적에 대한 확증 자료로 판단하고 그를 대표적 ‘밀정’의 한 사람으로 평가하였다.³²⁾

1919년 10월 宇都宮太郎과 재등실 총독을 만나고 상하이로 돌아간 김규홍은 이해 11월 21일과 12월 20일 宇都宮太郎에 편지를 보냈다. 宇都宮太郎도 전보와 서신, 전언 등의 방법으로 김규홍과 교신하였다. 김규홍이 宇都宮太郎에 보낸 편지는 일본어로 번역되어 총독에게도 보고되었다. 총독도 김규홍에게 별도의 서신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³³⁾

이 편지는 배경한 교수가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의 도움을 받아 입수하여 공개한 것이다. 배 교수는 김규홍에 대해 깊은 애정을 지니고 많은 자료를 발굴한 연구자이나, 결과적으로 이 편지를 수집하여 KBS에 공개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파장이 일어난 것이다. 그 후 배 교수는 논문을 통해 이 일기를 상세히 분석하며 독립운동에서 친일의 개념과 경계가 복잡하고 다양함에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宇

31) KBS는 ‘KBS스페셜, 3·1운동의 숨겨진 대부’(2013. 3. 3), ‘광복70년 특집 다큐 항일무장 투쟁의 선구자 김규홍’(2015. 8. 20) 등 두 차례에 걸쳐 김규홍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한 바 있다. 모두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밝히고 칭송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방영된 「밀정」 제2부는 50여분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약 20분 정도가 김규홍의 ‘밀정’ 행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32) 이 탐사보도를 기획한 KBS 이재석 기자는 언론의 몫과 학계의 몫은 다르다고 하며 이 방송을 통해 밀정 연구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였다(이재석, 「KBS <시시기획 창, 밀정 2부작>:가짜 독립유공자를 고발하다」, 『신문과 방송』(통권 586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년 10월호).

33) 『宇都宮太郎日記』 3권, 339쪽(1919년 11월 29일).

『都宮太郎日記』의 기술 그 자체가 김규홍의 친일 전향을 밝혀주는 부동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김규홍을 ‘책략가’라고 표현한 데서 그의 고민을 잘 읽을 수 있다.³⁴⁾ 다만, 이 논문에서 김규홍이 宇都宮太郎과 5차례 만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6차례 만났음이 분명하다. 두 사람의 만남의 주요 사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⁵⁾

- 9. 6 涉川雲岳과 金相高이 金復을 상해로부터 데리고 와서 九州에 潛匿 중

- 10. 2 약속한대로 涉川雲岳과 金相高이 金復을 데리고 와서 宇都宮太郎 만남(1차)

- 10. 4 사이토 총독, 金復 引見

- 10. 4 宇都宮太郎, 김복과 김상설 초청 만찬. 김복에게 노모 선물 비로 100엔 줌(2차)

- 10. 9 아침. 김복과 이상설이 宇都宮太郎 내방(3차)

- 10. 16 김복과 김상설, 3시 반 宇都宮太郎 만남(4차)

- 10. 19 김복과 김상설 宇都宮太郎내방(5차)

- 10. 24 김상설이 내방하여 김복과 총독의 회견 실행과 감상을 보고

- 10. 27 宇都宮太郎이 내일 상하이로 떠나는 김복을 김상설과 함께 만찬에 초대하자 김기창을 동반해 옴(6차)

본고에서는 김규홍의 행적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거나 평가를 내리지는 않겠다. 다만, 행적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제

34) 배경환, 2019, 「독립운동과 친일의 경계-在中 독립운동가 金奎興의 宇都宮太郎 조선군사령관에의 접근 문제-」, 『역사학보』 244.

35) 배경환은 金復과 宇都宮太郎이 만난 횟수를 5회(10/2, 4, 9, 16, 19)라 하고 있는데(2019, 앞의 논문, 327쪽), 宇都宮太郎은 김복이 상하이로 떠나기 전날인 10월 27일 그를 김상설과 함께 만찬에 초대하였다. 6차 만남인 셈인데, 이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김규홍 밀정설 보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김복과 宇都宮太郎이 만난 횟수를 5회라고 잘못 기술하였으며, 「밀정」에서도 5회라고 방송하였다.

시하기로 한다.

宇都宮太郎은 김규홍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파괴하고 内外 獨立 派를 改心시키라’는 지시를 했고, 김규홍은 宇都宮太郎에게 독립은 불가하다고 말하고 은행 설립안을 제시하며 상당액의 돈을 요구하였다.³⁶⁾ 서로의 속셈은 분명히 달랐으나, 일제가 ‘抗日巨魁’³⁷⁾인 김규홍을 회유와 포섭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틀림없고, 김규홍이 이에 응해 귀국하여 조선 총독과 조선군사령관 등 일제 수뇌부를 수차 만난 것도 사실이다. 물론 김규홍의 임시정부를 파괴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과 독립운동을 회유 포섭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곧, 김규홍이 宇都宮太郎의 지시를 이행한 증거는 없다. 또한 김규홍과의 첫 만남에서 ‘確實히 有力한 한 명의 門下를 얻은 기분(心地)이다’³⁸⁾라고 생각했던 宇都宮太郎도 끝내 김규홍이 요구한 돈을 주지는 않았다. 적어도 표면상 김규홍을 일제의 ‘밀정’으로 단정할 구체적 증거는 없는 것이다.

한편 일제 식민지 통치의 수뇌부인 齋藤實 총독과 조선군사령관인 宇都宮太郎을 6차나 만나고 일정기간 교신을 주고받은 것은 그의 독립운동계에서의 위상을 알려주는 사실이나, 이는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흠결’이다.³⁹⁾ 그는 宇都宮太郎에게 보낸 서신에서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며 조선인 내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일종의 自治論을 펴고 있다. 특히 내용 중 ‘밀정’ 김달하와 함께 베이징에 독립운동을 모아서 같이 귀국할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대한 흠결로 지적될 것이다. 심지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동향

36) 김규홍은 편지에서 宇都宮太郎에게 공작비로 20~3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는데, 당시 2만원이 4억 정도(2010년 기준)였다고 하니, 50억이 넘는 거액이다.

37) 이는 宇都宮太郎이 金復을 표현한 용어이다[『宇都宮太郎日記』 3권, 318쪽(1919년 10월 10일)].

38) 『宇都宮太郎日記』 3권, 313쪽(1919년 10월 2일).

39) 지금은 물론이지만, 서훈 당시(1998년)에도 이 일기 내용이 확인되었다면 결코 서훈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공적검증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판단할지 우려된다.

을 보고하며 상하이 독립운동 세력에게 자신의 ‘비밀활동’이 드러나 잠시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을 정도로 곤란한 처지라고 한 것도 사실이면, 당시 『獨立新聞』이 그에 대해 의혹 보도를 한 것은 사실로 드러나는 셈이다. 베이징에서 절친한 동지였던 박용만과 유사한 행적을 보인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김규홍의 宇都宮太郎을 매개로 한 일제와의 접촉과 교신은 이듬해 초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宇都宮太郎의 귀임과 사망으로 그와의 교신은 곧 끝난 것으로 보이며, 조선총독부와의 접촉도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규홍은 1919년 11월 상하이에서 흥국실업은행에 이어 1922년 5월 베이징에서 흥화실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일제로부터 자금을 받지 않고 韓中 합작으로 은행 설립의 꿈을 실현한 것이었다. 이 은행은 자금과 운영난으로 곧 폐업하고 말았으나, 은행 설립을 향한 그의 집요한 노력은 둔전병 양성 계획의 의지를 잘 알려준다.

김규홍이 일제와 접촉한 시기는 그의 독립운동 생애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특별히 드러난 가시적인 결과도 없다. 그러나 비록 파편적 기록이나 『宇都宮太郎日記』에 나오는 그의 행적과, 그가 宇都宮太郎에 보낸 서신의 내용은 그의 원대하고 장구한 독립운동의 공적과 실체를 통째로 부정당할만한 내용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어느 한편의 입장에만 서서 그를 평가하고 논의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금년 말경 일본에서 宇都宮太郎 자료가 탈초되어 발간될 예정이라고 한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객관적 사료에 토대를 두어야 하고, 또한 사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종합적 해석이 요구되는 지난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금은 김규홍에 대한 자료를 발굴하고 해석할 단계이지 선부르게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2016년 문체 제기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다소 경솔하고 성급하게 진행된 일련의 선양사업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⁴⁰⁾

40) 본고를 정리하며 옥천지역을 다시 답사하였다. 죽향초등학교 교정에 건립된 김규홍기념비와, 잡초가 무성한 채 문이 잠긴 문향헌 앞에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V. 맺음말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독립운동가를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보존하고 선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고는 옥천 출신 독립운동가의 현황과 해외 독립운동 활동을 살펴보고, 독립운동 선양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 11월 현재, 옥천 출신의 독립유공자는 51명이다. 이들을 운동계열별로 보면 3·1운동 참여자가 26명으로 절반이 넘고, 국내항일 9명, 의병 6명, 중국방면 3명, 의열투쟁과 학생운동 각 2명, 임시정부·만주방면·미주방면 각 1명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들 가운데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는 윤봉길 의거를 지원한 광중규·광중선 형제, 무장투쟁을 위해 둔전병 계획을 추진한 김규홍, 국내 의병에서 만주 독립군으로의 전환을 실증하는 김용선, 미주지역의 독립운동과 한인 언론을 주도한 김현구, 만주 독립군으로서 국내 의열투쟁을 계획한 전좌한, 다양한 이념을 수용하여 불굴의 투쟁을 벌인 조동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옥천의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설은 영성하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운동 현충시설은 이원면의 「기미3·1운동기념비」와 군서면의 「충민사」 2개소가 고작이다. 그나마도 「기미3·1운동기념비」는 1958년 건립된 것이라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옥천의 상징적 공간에 지역의 독립운동을 종합한 ‘옥천독립운동기념탑’(가칭)과, 국권회복운동을 상징하는 활동으로 1907년 국채보상운동과 1909년 문태수 의진의 이원역 폭파 의거를 기억하는 기념하는 기념물, 옥천의 3·1운동을 상징하는 이원과 청산의 만세운동 현장의 기념물 조성도 필요하다.

옥천의 독립운동가를 대표하는 인물인 전좌한과 김규홍의 행적에 시비가 제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전좌한에 대해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수차에 걸쳐 논란이 있었다. 김규홍에 대해서는 2016년 『宇都宮太郎日記』의 수록 내용 확인으로 행적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소문으

로만 나들던 김규홍이 宇都宮太郎에게 보낸 편지가 새로 발굴되어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인물 평가가 전면 부정당할 수도 있다. 더구나 금년 말경 宇都宮太郎 서한이 발간될 예정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나 기념사업회가 선양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차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실을 입증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때이다. 이와 함께 일제가 생산한 사료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수록된 내용의 실제 실행 여부에 유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제측 기록이 사실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던 김규홍의 구상과 고뇌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20.10.21, 심사개시일: 2020.10.24, 게재확정일: 2020.11.30.]

【參考文獻】

- 고정휴, 2004,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출판부.
- 김건실, 2015, 「충북의 독립운동가 열전 - 전좌한」, 『충북일보』 2015.7.19.
- 김선아, 2016, 「金鉉九의 재미언론활동과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76.
- 金承學, 1965, 『韓國獨立史』, 獨立文化社.
- 金正明編, 1967, 『朝鮮獨立運動』 第I卷, 日本原書房.
- 김정의, 2007, 「유정 조동호와 조선건국동맹」, 『문명연지』 19.
- 김호진, 2016, 「범재 김규홍의 생애와 독립군 양성 계획」, 『한국근현대사연구』 74.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독립운동사』 1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권
- 박결순, 2016, 「옥천 근대의 기억과 독립운동가」, 『중원문화연구』 24.
- 배경한, 2011, 「신해혁명과 한국 : 김규홍의 광둥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12.
- 배경한, 2019, 「독립운동과 친일의 경계」, 『역사학보』 244.
- 손염홍, 2015, 「김복의 둔전병제 독립운동과 홍화실업은행」, 『한국근현대사연구』 72.
- 안형주, 2007, 『박용만과 한인소년병학교』, 지식산업사.
- 李炫熙, 1992, 『趙東祐抗日鬪爭史』, 청아.
- 李炫熙, 2001, 『대한민국임시정부사』, 해안.
- 鄭英熹, 2008, 「榴亭 趙東祐의 抗日獨立運動研究」, 『역사와 실학』 3.
- 황묘희, 2007, 「新韓靑年黨과 榴亭 趙東祐」, 『문명연지』 19.
- 홍선표, 2011, 『자주독립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연세대학교출판부.

【Abstract】

The Overseas Independence Movement by Okcheon People & Tasks of Enhancement Business

Park, Gul-sun

As of November 2020, there are a total of independence 51 fighters from Okcheon. Classifying them by different types of independent movements, more than half of them (26 people)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9 of them were part of the domestic anti-Japanese Movement, 6 of them participated in the righteous army, 3 of them took part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China, 2 in the Heroic Struggle, 2 in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s, and 1 each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Movement, Independence Movement in Manchuria,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United States.

Among them, Independence fighters who worked abroad include the Kwak Joong-kyu & Kwak Jung-sun brothers(supported Yoon Bong-gil's Bombing at Hongkou Park), Kim Gyu-heung(worked on the Independence Army Project), Kim Eung-sun(demonstrated the transition from the domestic righteous army to the Manchurian Independence Army), Kim Hyun-koo(led the independence movement & Korean press/media in America), Jeon Jwa-han(planned the domestic Heroic Struggle as a part of the Manchurian Independence Army), and Jo Dong-ho(who led the indomitable Heroic Struggle by

accepting & embracing different ideologies)

However, the facilities that help us remember and commemorate the history of Okcheon's Independence Movement are poorly managed at this moment. There is a need to install an 'Okcheon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Tower (tentative name)' at a symbolic location of Okcheon, a commemorative monument to remember the 1907 National Debt Repayment Movement and the 1909 Bombing of Yiwon Station (Moon Tae-soo), and a memorial stone at the site of the 'Manse Movement' in Iwon and Chungsan, which represents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of Okcheon.

It is quite disappointing that disputes have been raised over the activities of Jeon Jwa-han and Kim Gyu-heung, who are regarded by many as the major figures that represent the Independence Activists of Okcheon. There has already been some controversies over the life & activities of Jeon Jwa-han since the 1980s. As for Kim Gyu-heung, some problems were raised in 2016, after the discovery of the content written in 『宇都宮太郎日記』, and even more dispute have been raised since the letters that Kim Kyu-heung sent to 宇都宮太郎 was found in 2019. If the content in those documents/letters are true, Kim Kyu-heung's status and achievements as an independence fighter could be completely denied. Therefore, it is time to focus on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to prove the facts. If such historical records are proven to be true, we should reconsider our view on Kim Kyu-heung as a person and an independence fighter.

Keywords: Independence Activists from Okcheon, Overseas Independence Movement, Enhancement Business, Kim Kyu-heung